

25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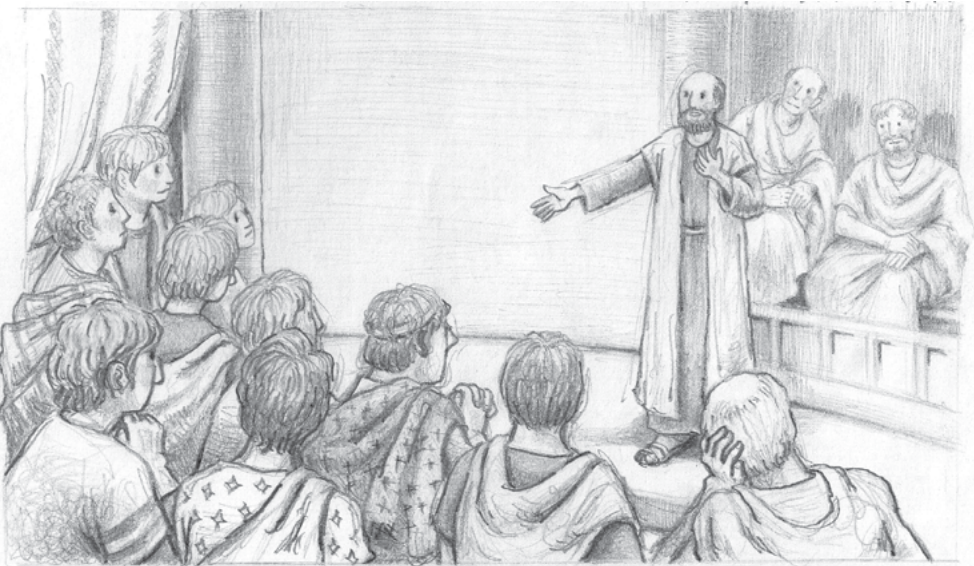
행 13장

찬송가 355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찬양 68장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오늘 배울



1.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압니다.
2.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압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뻐함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갈 2:8~9)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행 9:15~16)

말씀을 이해하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울은 이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에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자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도중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 대신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및 로마 등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의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는 3차에 걸친 기나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모든 고난을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핍박하는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항상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와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약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사람이었지만 죄인 중의 괴수였던 자신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임을 항상 잊지 않았기에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실로 바울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의 헌신적인 선교가 있었기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두루 전해질 수 있었고, 결국 우리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행 26:17~18)

I will deliver you from the Jewish people, as well as from the Gentiles, to whom I now send you, to open their eyes, in order to turn them from darkness to light, and from the power of Satan to God, that they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an inheritance among those who are sanctified by faith in Me. (Ac 26:17~18)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구원을 받아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얻게 될 “기업(inheritance)”이란 어떤 것일까요 (벧전 1:4)?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바울은 많은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쓴 성경들을 나열해 봅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 2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복음전도에 완전히 바쳤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전도활동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나요(고전 9:16, 행 4:20, 롬 20:9)?

고전 9:16	
행 4:20	
롬 20:9	

3

바울이 전도 여행 중 겪은 고난을 성경에서 찾아 적어보고, 나의 고난도 생각해보며 적어봅시다. 또한 이를 어떻게 이겨나갈지 다짐도 적어봅시다(고후 11:23~28, 행 14:19, 16:22~23, 27:14~33).

● 바울의 고난 :

● 나의 고난 :

● 나의 다짐 :

4

바울 사도처럼 나에게도 해외 선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라 이름 :

이유 :

선교를 가고 싶은 나라의 국기를 그려보세요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렘 20:9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의

잠 16:30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잠 24:11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잠 24:12

↓

행 4:20

↓

고전 9:16

↓

고전 9:18



영혼을 돌보는 위대한 사람

존 하이드(John Hyde)는 인도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게 영혼들을 주시거나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1900년대 초의 선교사였던 하이드는 자신의 기도와 일치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도하는 하이드’라고 불렀으며, 나중에 전기 작가들은 그를 ‘기도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밤마다 서너 번씩 깨어 기도했으며, 종종 얼굴을 바닥에 댄 채 밤을 새워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성공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은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청각 장애를 가졌고 인도어를 배우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외향적 성격이 아닌 탓에 수줍음을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하이드는 하루에 최소한 한 명의 회심자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고 동료들은 불가능한 요청이라고 여겼지만, 그해 말에 400명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듬해 자신의 요구를 두 배로 늘려 하루에 두 명의 영혼을 얻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800명 이상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요구를 다시 두 배로 늘렸고, 한 해에 1,600명 이상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했습니다. 존 하이드는 위대한 기도를 했고, 수천 명의 인도인이 그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질문 있어요~



삼하 24장 말씀에 보면 인구조사 후에 다윗이 자책하고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10절). 민수기와 달리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요압은 왕의 명령을 밋게 여겼는지 궁금합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계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민 1:1~3). 그러나 삼하 24:1에 기록된 말씀은 위의 내용과는 다른 성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대상 21:1). 그러므로 삼하 24:1의 말씀은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보아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이 왜 죄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삼하 24장과 대상 21장의 이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온 다윗은 주변 이웃나라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왕국으로 세우게 됩니다(대상 18~20장). 다윗은 자신의 영예와 막강한 군사력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여 기쁨을 누리고자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만이라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충성된 신하였던 요압은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에 얻어진 것임을 다윗으로 하여금 자각하여 돌이키게 하려 했으나 계속되는 재촉으로 말미암아 요압은 등 떠밀리듯 억지로 인구조사를 행하게 됩니다. 요압은 이같이 잘못된 왕의 명령을 밋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지파는 일부러 계수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대상 21:6).

대상 21:7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꾀심히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요압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만에 빠져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의 죄를 꾀심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자(대상 21:8)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히 징계하시겠다고 선지자 갓을 보내게 됩니다. 잠시 자만이라는 교만에 빠진 죄의 값이 자그만치 7만의 생명이었습니다(대상 21:9~14). 교만이라는 죄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징계의 잣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